

국립국어원 소식

국립국어원 소식

1.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다듬은 말 선정

- 에어 와셔(air washer)의 다듬은 말: 공기 세척기
- 디지털 도어록(digital doorlock)의 다듬은 말: 전자 잠금장치
- 쿡톱(cook top)의 다듬은 말: 가열대

‘에어 와셔(air washer)’는 필터 역할을 하는 물이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를 ‘공기 세척기’로 다듬었다. ‘디지털 도어록(digital doorlock)’은 잠긴 문을 열쇠로 여는 대신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 또는 카드를 인식하여 문을 열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가리킨다. 이를 ‘전자 잠금장치’로 다듬었다. 음식을 데우거나 끓이는 기구인 ‘쿡톱(cook top)’은 ‘가열대’로 다듬었다.

이번에 다듬은 말들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미세 먼지 문제로 최근 실내 공기 청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기 세척기(←에어 와셔)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 전기 가열대(←쿡톱)는 불이 아니라 전기를 사용해 화재 위험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가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해 가스 배출이 없어 주방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 전자 잠금장치(←디지털 도어록)는 자주 누르는 번호의 버튼이 많아 외부인이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번호를 바꿔야 안전하다.

2. 국립국어원 원내 토론회

2.1. 2016년 제2회 원내 토론회

- **주제:** 일제 강점기 신문 고민 상담을 통해 본 국어의 변화
- **발표자:** 전봉관(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 **일시:** 2016년 7월 25일(월) 16:00~18:00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제2회 원내 토론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봉관 교수가 ‘일제 강점기 신문 고민 상담을 통해 본 국어의 변화’라는 주제로, 1930년대 근대 한국의 사회 현상, 가치관, 그에 따른 언어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문 고민 상담 사례(<조선일보>에 1931년 9월 18일에서 1940년 3월 27일까지 연재되었던 고민 상담 코너 ‘어찌하리까?’를 중심으로)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1930년대는 전통적인 조선의 사회상에서 벗어나 근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사회·문화적 충돌과 혼란이 있던 시기이다. 결혼, 교육 등에서 다양한 사회 변화가 나타나면서 전통적인 제도나 가치관이 그 시대의 유행과 대립하게 되었다. 이는 ‘무엇이 윤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어찌하리까?’에 나타난 여러 사연과 상담 내용은 당대의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발표자는 80여 년 전 과거를 설명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시대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혔다.

‘어찌하리까?’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는 조혼에 관한 것이다.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던 조혼의 풍습으로 5세 이하의 영유아까지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어린 부부가 많았다. 이로 인해 어린 남편이 자라 학업을 시작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아내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해 다른 여성과 사귀거나, 본처를 무시하다 하여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당시의 가정 유지, 연애에 대한 고민이 ‘어찌하리까?’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으나 고민에 대한 답변이 주로 여성이 참고 남성을 이해하라는 쪽으로 치우쳐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이 시대의 또 다른 모습으로는, 학업에 뛰어드는 여성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신여성들은 학교에서 만난 남학생들과 자유연애를 하곤 하였으나, 남학생들 대부분은 조혼의 풍습으로 이미 아내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발표자는 이로 인해 첩이 된 신여성과 본처인 구여성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어찌하리까?’에는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고민 상담도 실렸는데, 이에 대해 ‘혼자 숨기고 조심하라,’ ‘이해심 있는 남편을 구하시오’ 등 성폭행의 원인이 피해 여성에게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발표자는 1930년대 한국의 여성에게는 엄격한 정조 관념을 요구하면서도, 강제로 정조를 앗아 간 성폭력 가해자를 찾아내 처벌하려는 노력은 등한시하던 모순된 모습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이 밖에도 ‘어찌하리까?’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생겨난 진로에 대한 고민, 영어 공부에 대한 고민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시간에는 현대에 이르러 다듬어진 가정과 결혼 관련 가치관, 1930년대에 ‘본처’로 일컬어지던 여성의 인권 보장 문제, 상담의 답변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일본에서 넘어온 연애의 개념이 1930년대 한국의 연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등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1930년대 근대 한국의 사회 현상, 가치관, 그에 따른 언어 사용을 확인하고, 우리의 언어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공감하며 원내 토론회를 마쳤다.

2.2. 2016년 제3회 원내 토론회

- **주제:** 제3차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설명 및 토론
- **발표자:** 이대성(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학예연구관)
- **일시:** 2016년 9월 1일(목) 16:30~18:00
- **장소:** 국립국어원 3층 강의실

제3회 원내 토론회에서는 국립국어원 이대성 학예연구관이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주제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립국어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업 계획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은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된다. 기본 계획의 목적은 첫째, 국민들이 바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 환경 조성 및 국민 언어 통합을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변화하는 언어 환경과 급증하는 국내외 한국어 수요에 맞추어 한국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며, 셋째, 국어와 한글 관련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우리말과 글의 가치를 창출하여 국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3차 기본 계획은 국어 정책, 어문 규범,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국어 교육, 국어 문화유산, 국어의 국외 보급, 국어 정보화,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 장애인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차 기본 계획의 목표는 ‘전 국민이 누리는 국어, 전 세계가 함께하는 한국어’이다. 발표자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추진 과제와 그에 따른 실행 과제들을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첫 번째 추진 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언어 정책 기반 조성’으로, 어문 규범

현실화, 국어사전의 개방적 운영 및 활성화, 언어 정보 자원 구축 및 활용, 국어 기본 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의 네 가지 실행 과제로 세분화하였다.

두 번째 추진 과제는 ‘바르고 편리한 언어 환경 지원’으로,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지원, 공공 언어 개선 활성화, 바른 언어문화 기반 조성, 지역 언어문화 기반 국어문화원 활성화의 실행 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 번째 추진 과제는 ‘국민 언어 통합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구축’에 관한 것이다. 이는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특수 언어 환경 개선 및 보급 확대, 언어 취약 계층 지원, 사회·지역 방언 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의 실행 과제로 나누었다.

네 번째 추진 과제는 ‘한글과 한국어 확산’으로, 국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한 세종학당 활성화, 한국어 교육 체계화 및 기반 강화,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운용 및 교원 연계망 구축, 한국어 교원 연수 과정 운영 등 네 가지 실행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다섯 번째 추진 과제는 ‘한글문화 진흥 및 향유 확대’이다. 이는 다양한 한글문화 자원의 수집 및 전시, 한글문화 연구·교육 및 산업화 기반 구축, 한글날 기념 및 한글문화 관련 포상,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에 관한 실행 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발표가 끝난 후 제2차 국어 발전 기본 계획과 비교하여 어떤 일들을 국어원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기본 계획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국어원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해야 할 사항임에 동감하며 원내 토론회를 마쳤다.

3.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위치: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korean.go.kr>)
- ‘자료 찾기’ → ‘연구 결과’ → ‘기타 자료’ → 검색: 검색어 ‘역대’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17차 심의 확정안(2016. 6. 24.)
- 제127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결정안(2016. 6. 29.)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18차 심의 확정안(2016. 7. 8.)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19차 심의 확정안(2016. 7. 15.)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20차 심의 확정안(2016. 7. 22.)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21차 심의 확정안(2016. 7. 29.)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22차 심의 확정안(2016. 8. 5.)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23차 심의 확정안(2016. 8. 12.)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24차 심의 확정안(2016. 8. 19.)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25차 심의 확정안(2016. 8. 26.)
- 제128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결정안(2016. 8. 31.)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26차 심의 확정안(2016. 9. 9.)

4. 국립국어원, 문화재 안내문 작성 지침서 발간

4.1. 문화재 안내문이 쉬워진다

국립국어원은 문화재청과 함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 안내문을 쓸 수 있도록 돕는 《한눈에 알아보는 문화재 안내문 바로 쓰기》를 발간하였다.

문화재 안내문은 문화재를 관람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재를 설명하는 공공 언어임에도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 표현으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국에 있는 문화재 안내문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한 공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작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문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바람직한 안내문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 문화재 안내문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립국어원과 문화재청은 지난 3월 안내 문안의 가독성을 높이고 한자나 연도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 안내 문안 작성의 세부 기준을 개정하였고(‘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 디자인 지침’ 2016. 3. 28. 개정, 문화재청 예규 제162호) 이 기준에 따라 문화재 안내문을 작성하는 담당자들이 곁에 놓고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는 문화재 안내문 바로 쓰기 길잡이를 만들게 된 것이다.

4.2. 전국 지방 자치 단체에 배포

《한눈에 알아보는 문화재 안내문 바로 쓰기》는 새로 바뀐 지침에 따라 서른 가지의 실제 문화재 안내문을 대상으로 오류를 설명하여, 쉽고 바른 문화재 안내문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책의 앞부분에는 문화재의 종류, 안내 문안 구성 요소 등을 소개하고 이어 요소별 세부 기준에 따른

사례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맞춤법, 띄어쓰기, 표현, 낱말, 쉬운 말, 문장’별로 다듬어 쓴 사례를 제시하여 필요한 내용을 모아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전국 지방 자치 단체 문화재 관련 담당자에게 배포되어 안내문 작성자가 안내문을 쓸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발간을 기회로 문화재청에서는 7월 5일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안내문 작성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내문 바로 쓰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연 2회로 정례화하여 바르고 쉬운 문화재 안내문을 작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앞으로 국립국어원은 문화재청과 협력하여 지정 문화재 안내문을 수집하고, 표기·표현 감수를 지원하여 바르고 쉬운 문화재 안내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5. 외국어로 잘못 표기된 한식 메뉴판 바로잡는다

5.1. 문체부, 농식품부, 국립국어원, 한국관광공사 및 한식재단 등 협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립국어원, 한국관광공사, 한식재단,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계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외국어로 잘못 표기된 한식 메뉴판을 바로잡는다.

이는 2015년 말(10. 20.~12. 8.)에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서울·경기 지역 274개 한식당의 외국어 메뉴판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염동열 의원(지역구,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이 ‘서울 주요 관광지 한식당 중 중국어 메뉴판이 있는 식당 가운데 1/3의 메뉴판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관계 기관들이 대책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5.2. 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법 표준화 및 시장의 수요에 대응, 외국어 표기 확대

현재 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법과 관련하여 메뉴명이 표준화(일원화)된 것은 200개 수준이고,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해 표준화는 되지 않았더라도 번역에 오류가 없는 메뉴는 약 3,700개가 있다. 이에 대하여 국립국어원과 한식재단은 공동으로 외국인들을 포함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음식 분야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한식 메뉴의 외국어 표기법을 표준화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새로운 메뉴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현실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록 표준화는 되지 않았지만 한식당에서 곧바로 사용해도 무방한 메뉴명을 번역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표기법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시장의 수요에도 적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5.3. ‘외국어 메뉴판 만들기’ 활성화 및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한글로 한식 메뉴와 번역할 언어를 선택하면, 외국어 번역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메뉴판이 만들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가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내에 있어서 접근하기 불편하므로 별도의 독립된 사이트로 구축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여러 기관의 외국어 표기 관련 정보가 집적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등 검색 포털 사이트와 협력하여 검색창에 음식명을 입력하면 3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표준 번역안이 표출되게 함으로써 이용자가 한식 외국어 표기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온라인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식당 등에서 쓰이는 메뉴판의 번역은 간판·광고 업체(41.8%), 가맹점 본사(27.5%)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표 협회인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지역 인쇄업자, 프랜차이즈협회 등과 협력하여 외국어 표기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케이 스마일(K-Smile) 캠페인’, ‘케이 푸드(K-food) 페스티벌’ 등 관광 행사와 연계하여 메뉴 외국어 오역 사례나 관광공사 메뉴 제작 서비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홍보 책자를 배부하고, 다양한 기획 행사를 개최하여 현장 중심의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식재단은 올해 하반기에 외식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전국 외식업계 종사자 및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6.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2016 국제 학술 대회 공동 개최

국립국어원은 ‘수화언어와 사회적 의사소통’을 주제로 9월 7일(수) 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에서 한국농아인협회와 공동으로 2016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및 시행을 기념하고, 수화 언어(이하 수어)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 대회는 독일, 미국, 중국(홍콩), 영국,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의 수어 관련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수어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이번 국제 학술 대회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수어 정책,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 수어 교육 현황, 정보화 시대의 수어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기조연설은 농인이자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교수인 크리스티안 라트만(Christian Rathmann) 박사가 맡아, 사회적 의사소통에 있어 수어 사용의 중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농인 학자이자 농문화 연구의 대가인 미국 캘러릿 대학교의 벤저민 베이헌(Benjamin Bahan) 교수는 ‘감각과 문화’라는 주제로 수어와 농문화에 대해 발표하였다. 수어의 습득과 교육에 대해서는 홍콩 중문 대학교의 필릭스 시(Felix Sze) 교수가 이중 언어 교육 환경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홍콩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대한민국의 수어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관해서는 국립국어원 정희원 어문연구실장이 발표하였다. 한편 수어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대해서는 영국 버밍엄 대학교의 애덤 켐브리(Adam Schembri) 교수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대용량의 수어 자료인 영국수어 말뭉치에 관해 발표하였으며, 네덜란드 랏바우트 대학교의 오노 크라스보른(Onno Crasborn) 교수는 수어 연구를 위한 분석 도구 활용 방법을 소개하였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취지를 되새김으로써 ‘또 하나의 언어’로서의 한국

수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한국 사회 내 의사소통의 지평을 넓히고자 마련된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사회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한국수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7. 2016년 국립국어원 국어 정책 학술 대회 공모 선정 결과

국립국어원에서는 유관 학술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어 정책 주요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어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2016년 국립국어원 국어 정책 학술 대회 공모를 추진하였다. 심사 결과 선정된 학회와 주제는 아래와 같다.

연번	학회명(가나다순)	학술 대회 주제	개최일
1	국어학회	국립국어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토론회	12. 15.(목)
2	한국어교육학회	자기표현 능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	12. 3.(토) ~ 12. 4.(일)
3	한국화법학회	한국어 듣기 능력과 듣기 교육	9. 24.(토)

8. 국립국어원에 특수언어진흥과 신설

9월 20일(화), 시청각 장애인의 언어권 향상을 위한 국립국어원의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문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능 개편의 주요 내용은 국립국어원의 어문연구실 내 ‘특수언어진흥과’ 신설에 관한 것으로, 이로써 국립국어원은 2부(실) 6과 체제에서 2부(실) 7과 체제로 재편되었다.

‘특수언어진흥과’는 특수 언어의 보급과 사용 환경 개선 정책을 전담하며, 「한국수화언어법」(’16년 8월 시행)과 「점자법」(’17년 5월 시행)에 따라 한국수어와 점자의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해당 과에서는 앞으로 대용량 한국수어 영상 자료와 한국수어사전을 구축하는 등 특수 언어 정보화 지원 체계를 갖추고, 한국수어 전문 용어 표준화, 한국점자 규격 표준화 등을 통해 특수 언어의 보급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이 사회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 언어 교육 과정과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한국수어 및 점자 문화 학교 운영 등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의 언어 소통 환경과 국어 능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9. 인사이동

9.1. 임용

- 이수미(학예연구사 시보): 신규 임용, 어문연구과 근무(7월 1일)
- 박선(한시임기제 6호): 신규 임용, 어문연구과 근무(8월 3일)

9.2. 전보 발령

- 강성임(행정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연수과(8월 11일)
- 오진숙(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어진흥과장(8월 16일)
- 정호성(학예연구관): 국립한글박물관 → 어문연구과장(8월 16일)
- 이승재(어문연구과장): 어문연구과장 → 국립한글박물관(8월 16일)
- 황용주(학예연구관): 한국어진흥과 → 특수언어진흥과(9월 29일)
- 이수미(학예연구사): 어문연구과 → 특수언어진흥과(9월 29일)

9.3. 직무 대리

- 황용주(학예연구사): 한국어진흥과장 직무 대리(8월 3일~16일)
- 정호성(어문연구과장): 특수언어진흥과장 직무 대리(9월 29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9.4. 승진

- 유은숙: 행정서기 → 행정주사보(6월 21일)
- 채영주: 6급(행정주사) 대우(7월 1일)

9.5. 시보 해제

- 박성욱(행정주사보 시보): 행정주사보에 임용(7월 25일)
- 이현우(행정주사보 시보): 행정주사보에 임용(7월 25일)
- 김수현(학예연구사 시보): 학예연구사에 임용(8월 24일)

9.6. 퇴직

- 서광철(서기관): 명예퇴직(7월 29일)
- 김동안(한국어진흥과장): 명예퇴직(8월 3일)